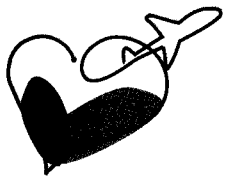




수단 정수시설 완공식 주협흡충퇴치사업 성공을 위하여



sudan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 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수단 사시



한국인의 선물, 정수시설

우리 일행은 지난해 12월 23일 정수시설 완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부 수단 방향으로 30분 정도 차로 이동하여 알히렘 마을에 도착했다. 마른 흠바닥의 별판 위에 우뚝 솟은 정수탱크가 보이고, 완공식 행사장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아라베스크 문양의 그림이 그려진 대형 천막을 쳐서 200여 명을 수용할 만한 천막 홀이 만들어져 있었다.

알자발라인 수도사업 관계자들이 완공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멀리서 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한 손에는 수단 국기와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든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대열을 맞추어 식당을 향해 오고 있었다. 완공식이 시작되고, 본사업의 수단 측 책임자인 기브릴 박사는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주혈흡충에 재감염되지 않기 위해 여러 행동 수칙들을 잘 따라야 할 것을 당부하며, 최대 감염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이 마을이 다른 지역에게 주혈흡충퇴치사업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알자발라인 지역장은 정수시설에 대해 한국인의 선물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달아 했고, 이어 보건부 장관 역시,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화이트나일주(州)는 조만간 주혈흡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군부와 지역경찰 대표들, 동네 유지, 화이트나일 전 보건부 장관 등이 행사에 참석한 정수시설의 완공식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화이트나일주(州)의 큰 경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도 “이 정수시설이 식수 부족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혈흡충을 비롯한 각종 수인성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물을 트는 통수식에서 본 사업의 수단 측 책임자인 기브릴 박사가 첫 시음을 하자, 지역 마을 사람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반짝이는 눈동자 수단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다

우리 일행과 KOICA 기생충검사실 아흐마드 소장을 비롯한 보건부에서 파견근무 중인 7명의 직원들은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증감염지역으로 선정된 코아즈왈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2,294명에 대한 주혈흡충 예방 보건교육과 구충약품(프라지판텔)을 투약했고, 854명의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313명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였다.

수단 방문이 처음인 조한익 회장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할 일이 참 많다.”라며 마을의 열악한 주변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009년 8월 사업 지역을 방문한 이후 네 차례 이곳을 방문한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 충남의대 이영하 교수와 우리 일행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흠바닥에 맨발로 서 있던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까만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희망을 보았기에 조금이나마 무거움을 덜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관리 퇴치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한 기생충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OECD 산하 DAC 회원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등의 질병을 퇴치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과제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현과 혁신적 개발 재원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MEDYCHECK**